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8 지방직 7급 국어(C영)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종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응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나래국어 알기쉬운 문법,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저절로 어휘완자,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 헤르메스
 이유진 나래국어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300제,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예상300제, 박문각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입맛춤,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부모와 자식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 ② 김 양의 할머니는 안동 권씨라고 합니다.
- ③ 내일이 이 충무공 탄신 500돌이라고 합니다.
- ④ 이번 여름에는 카리브 해로 휴가를 가기로 했다.

★ 정답: ②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정답 해설:

·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성(姓)이나 성명, 이름 뒤에 쓰여 아랫사람을 조금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양’은 의존명사이므로 ‘김 양’과 같이 띄어 쓴다.
 · 인명에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씨’는 ‘안동 권씨’와 같이 붙여 쓴다.

씨(氏)	의존 명사	홍길동 씨 (특정인 뒤)
	접사	그의 성은 박씨입니다.

★ 오답 해설:

①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간’은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와 같이 쓰는 것이 맞다.

간 (間)	의존 명사	부모와 자식 간 (거리나 관계)
	접사	천천 간, 혈육 간, 친구 간, 사제 간
	합성어	이틀간(시간의 경과), 외양간(장소)

③ 한글 맞춤법 제48항에 따르면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쓰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같이 쓰는 것이 맞다. 다만, 이순신의 성과 시호를 함께 이르는 말인 ‘이충무공’은 명사로 사전에 등재되었으므로 ‘내일이 이충무공 탄신 500돌이라고 합니다.’라 쓰는 것이 맞다.

④ 2017년 개정으로 인해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카리브 해, 발리 섬, 알프스 산’ 등으로 쓰던 것을 이제 ‘카리브해, 발리섬, 알프스산’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문 2.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밥이 차져서 내 입맛에 맞았다.
- ② 아기가 이쁘디이쁜 미소를 짓고 있다.
- ③ 그녀가 내 소맷깃을 슬며시 잡아당겼다.
- ④ 동생은 안경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경 도수를 더 돌구었다.

★ 정답: ③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정답 해설:

‘윗옷의 좌우에 있어 두 팔을 켜는 부분’을 가리키는 ‘소매’에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목에 둘러대어 앞에서 여밀 수 있도록 된 부분’을 뜻하는 ‘옷깃’의 준말인 ‘깃’을 합성해 ‘소맷깃’이라고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옷깃’은 윗옷의 위쪽에 달려 있는 것이지 소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소맷깃’의 옳은 말은 ‘소맷귀’이며 ‘소맷귀’에서 ‘귀’는 ‘두루마리나 저고리의 설 끝부분’을 뜻한다.

★ 오답 해설:

①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8항 규정에 따라 ‘차지다’로 적는 것이 맞다. 참고로, 2015년 개정으로 인해 ‘찰지다’ 역시 ‘차지다’의 원말로 표준어 인정이 되었다.

② ‘이쁘다’는 ‘예쁘다’의 비표준어였으나 2015년 11월 개정으로 인해 ‘예쁘다’와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그로 인해 ‘이쁘다’의 활용형태인 ‘이쁘디이쁘다’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④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는 ‘돌구다’가 맞다. 흔히 ‘돌구다’와 ‘돌우다’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돌우다’는 ‘높아지게 하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으로 쓰는 것이 통례이다.

참고> 동사 ‘돌구다’

돌구다: 안경 따위의 도수를 더 높게 하다.

돌우다

1) 위로 끌어올려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

예) 호롱불의 심지를 돌우다. / 동생은 발끝을 돌우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2) 밑을 피거나 쌓아 올려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

예) 벽돌을 돌우다. / 친구는 방석을 여러 장 겹쳐 자리를 돌운 다음 그 위에 앉았다.

3) 감정이나 기색 따위가 생겨나게 하다.

예) 신바람을 돌우다. / 신명을 돌우다. / 화를 돌우다. / 호기심을 돌우다. / 신경을 돌우다. / 노인네들의 취흥을 돌우다.

4) 정도를 더 높이다.

예) 나무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달빛이 더욱 적막을 돌우었다. -정비석, <성황당>

5) 입맛이 당기게 하다.

예) 싱그러운 봄나물이 입맛을 돌우었다.

다음 이유진 나래 카페: <http://cafe.daum.net/naraeyoujin>

문 3. 다음은 사이시옷 규정의 일부이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① 예삿일 ② 훗날
③ 윗옷 ④ 냇가

☆ 정답: ③ - 어문규정- 한글 맞춤법

☆ 정답 해설: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윗옷’은 “‘웃-’ 및 ‘윗-’은 명사 ‘위에’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는 표준어 규정 제12항에 따라 ‘윗옷’으로 적는 것이다. ‘윗옷’은 [위돗]으로 발음하므로 사잇소리 현상을 바탕으로 사이시옷을 포기하는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부합하는 단어가 아니다.

참고로, ‘웃웃’은 ‘겉웃’을 의미하는 단어로 ‘윗웃’과는 다른 의미이다.

☆ 오답 해설:

- ① ‘예사일(例事)’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ㄹ’ 소리가 덧나는 것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이다. ‘보통 있는 일’을 뜻하는 한자어 ‘예사(例事)’에 순우리말 ‘일’을 합성한 ‘예사일’은 [예 : 산닐]로 발음한다.
- ② ‘훗날(後-)’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이다. ‘뒤’를 뜻하는 한자어 ‘후(後)’와 순우리말 ‘날’을 합성한 ‘훗날’은 [훈 : 날]로 발음한다.
- ③ ‘넷가’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이다.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를 뜻하는 순우리말 ‘내’에 ‘주변’을 뜻하는 순우리말 ‘가’를 합성한 ‘넷가’는 [내 : 까/넌 : 까]로 발음한다.

문 4. 다음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혹은 역사적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작가의 단일한 재해석 또는 상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상상됨으로써 다중적으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역사의 속성을 견지한다. 이는 곧 과거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텔레비전 역사드라마가 현재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역사적 시간과 공간적 배경 속에 놓여 있는 등장인물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시청자들이 역사드라마를 주제로 삼아 사회적 담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

- ① 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소재로만 역사드라마를 만들어야겠군.
- ② 역사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이 사회적 화젯거리를 만들 수 있겠군.
- ③ 작가가 강조하는 역사적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역사드라마를 시청해야겠군.
- ④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은 역사드라마에서 항상 악인으로만 그려지겠군.

☆ 정답: ② - 독해 - 비문학 - 내용 일치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제시된 글에 ‘시청자들이 역사드라마를 주제로 삼아 사회적 담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시청자들이 역사드라마를 통해 사회적 화제거리를 만들어 교류함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제시된 글은 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소재로만 역사드라마를 만들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소재가 현재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역사드라마를 만들더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이야깃거리를 찾고 이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한다.
- ③ 제시된 글은 역사적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역사드라마를 시청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이 능동적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는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 ④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 역사드라마에서 항상 악인으로만 그려진다는 내용은 제시된 글을 읽고 유추할 수 없다.

문 5.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값진[갑진]: 탈락, 첨가 현상이 있다.
- ② 박과[박파]: 대치, 축약 현상이 있다.
- ③ 끓는[끓른]: 탈락, 대치 현상이 있다.
- ④ 발도[발또]: 대치, 첨가 현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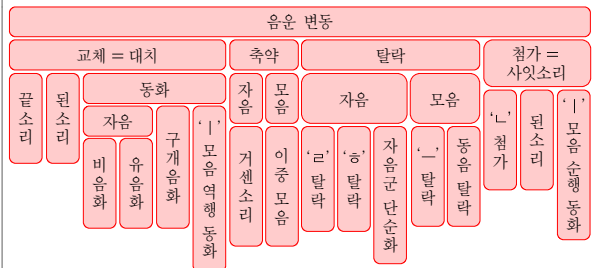
☆ 정답: ③ -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의 변동

☆ 정답 해설:

끓는[끓는(탈락) → 끓른(유음화)]

‘꿀’의 겹받침 ‘ㄹ’에서 ‘중’이 탈락된 후 뒷말의 초성 ‘ㄴ’이 앞말 ‘꿀-’의 종성 ‘ㄹ’에 의해 유음화되어 [꿀른]으로 발음하게 된다. 자음동화인 유음화는 대치(=교체) 현상에 속한다.

따라서 탈락과 대치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음운의 변동 현상

☆ 오답 해설:

- ① 값진[갑진(탈락) → 갑진(대치)]
 ‘값’의 겹받침 ‘ㅈ’에서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ㅈ’이 탈락되어 ‘ㅊ’이 된 후, 안올림 예사소리와 안올림 예사소리가 만나 된소리가 되는 대치(=교체)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갑진]으로 발음하게 된다.
 따라서 탈락과 대치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 ② 뱀과[박과(대치) → 박과(대치)]
 ‘뱀’의 쌍자음 받침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이 된 후 안올림 예사소리와 안올림 예사소리가 만나 된소리가 되는 대치(=교체)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박과]로 발음하게 된다.
 따라서 대치 현상만 두 번 일어난 것이다.
- ④ 발도[발도(대치) → 발도(대치)]
 ‘발’의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이 된 후 안올림 예사소리와 안올림 예사소리가 만나 된소리가 되는 대치(=교체)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발도]라 발음하게 된다.
 따라서 대치 현상만 두 번 일어난 것이다.

문 8. 다음 글의 중심 생각을 표현한 성어는?

내 집이 산속에 있는데 문 앞에 큰 개울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에 소낙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개울물이 갑자기 불어 언제나 수레 소리, 말 달리는 소리, 대포 소리, 북소리를 듣게 되어 마침내 귀에 못이 박혔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의 종류를 비교해 들어 보았다. 깊은 숲속에서 솔바람 소리 이는 듯하니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린다.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격분한 듯 들린다.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하니 이 소리는 교만하게 들린다. 많은 축(筑)이 차례로 연주되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성난 듯이 들린다.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놀란 듯 들린다. 약한 불 켜 불에 찻물이 끓는 듯하니 이 소리는 아취 있게 들린다. 거문고와 궁조(宮調)와 우조(羽調)에 맞게 연주되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슬프게 들린다. 종이 창문에 바람이 문풍지를 울게 하는 듯하니 이 소리는 의아하게 들린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 ① 以心傳心 ② 心機一轉
③ 人心不可測 ④ 一切唯心造

★ 정답: ④ - 독해 - 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성어

★ 정답 해설:

글쓴이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같은 개울물의 소리를 청아하게 듣기도 하고, 교만하게 듣기도 하고, 성난 듯이 듣기도 하고, 슬프게 듣기도 한다. 제시된 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어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 一 한 일, 切 온통 체, 唯 오직 유, 心 마음 심, 造 지을 조 [작품해설]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 갈래: 한문 수필, 기행 수필
- 성격: 체험적, 사색적, 분석적, 교훈적
- 제재: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넌 체험
- 특징: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결론을 이끌어 냄.
- 주제: ① 외물(外物)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
② 이목(耳目)에 구애됨이 없는 초연한 마음
③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

★ 오답 해설:

- ①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으로 마음에 전한다.'는 뜻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의사가 전달됨을 의미한다.
以 써 이, 心 마음 심, 傳 전달 전
② 심기일전(心機一轉): 어떠한 동기에 의하여 이제까지의 먹었던 마음을 바꾸다.
心 마음 심, 機 틀 기, 一 한 일, 轉 구를 전
③ 인심불가측(人心不可測):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人 사람 인, 心 마음 심, 不 아닐 불, 可 가할 가, 測 헤아릴 측

문 9.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 75. 북측 초소(밤)

성식: (우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위커 끈을 풀어서 다시 매 주며) 얌마, 군인이 한 번 가르쳐 주면 제대로 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매 줄 순 (쓰쓸해지며) 없잖아. (위커 끈을 매 주는 안타까운 표정. 일어서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참! (봉투에 싣 물건을 꺼내 들고 한 손으로 우진의 어깨를 짚으며 짐짓 느끼한 톤으로) 생일 축하해. 진.

또 한번 우엑! 하는 수혁. 너무 그러지 말라는 듯 옆에서 툭 치는 경필. 포장을 끄른 우진. 일제 수채와 물감 한 통과 붓 몇 자루를 내려다본다.
... (중략) ...

우진: (진정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도, 형들 줄려구 준비한 게 있어요. 수혁: 뭐데?

말없이 성식이 앉았던 자리로 와 앉는 우진. 모두들 궁금해하며 주목한다. 잠시 침묵. 주머니를 뒤지며 시간을 끄는 우진. 찾는 물건이 없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한다.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더니, 큰 소리로 방귀를 끼는 우진. 일동, 좌절하며 고개를 꼭 숙인다. 킬킬대는 우진, 일어서서 테이블로 간다. 서랍을 열고 서류철을 꺼내 뭔가를 찾는 우진. 경필, 무표정한 얼굴에서 갑자기 오만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린다.
경필: (코를 막으며) 야아, 문 열어!
초소 문을 열러 가는 성식, 손을 내미는 순간 먼저 문이 열린다. 무심코 돌아본 경필, 굳어 버린다.

- 박찬욱 외, 「공동경비구역 JSA」-

- ① 경필은 참을성이 강하고 포용력이 있다.
② 수혁은 우진의 선물을 궁금해한다.
③ 우진은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해학적인 상황을 만든다.
④ 성식은 인간적이고 성품을 따뜻하다.

★ 정답: ① - 독해 - 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제시된 글에 경필이 참을성이 강하고 포용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은 없다. 오히려 냄새에 가장 먼저 코를 막으며 문을 열라고 말하는 데서 참을성이 강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작품해설] 박찬욱 원작, <공동경비구역 JSA>

- 해제: 남한군과 북한군이 대치 상태에 있는 공동 경비 구역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남북 병사의 우정을 통해, 이념 갈등이 휴머니즘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원작 소설 'DMZ'를 각색하여 분단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영화라는 장르의 특징을 살려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 주제: 분단을 뛰어넘는 남북 병사의 우정과 비극적 결말을 빚어내는 분단 체제의 모순
- 전체 줄거리: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초소에서 격렬한 총성이 울려 퍼진다. 어린 북한 초소병 정우진 병사가 처참하게 살해되고 그 옆엔 중년의 북한 상위가 쓰러져 있다. 그리고 남북 군사 분계선 한가운데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젊은 남한군 이수혁 병장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다. 사건 이후 북한은 남한의 기습 테러 공격으로, 남한은 북한의 납치로 각각 엇갈린 주장을 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서는 책임 수사관으로 한국계 스위스인 소피를 파견, 사건의真相을 수사한다. 소피는 사건 당사자인 남한의 이수혁 병장과 북한의 오경필 중사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지만 그들은 서로 상반된 진술만을 반복해 수사는 점차 미궁으로 빠져든다. 그러던 중 사건 최초의 목격자인 남성식 일병이 돌연 투신자살을 시도한다. 소피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총알 하나가 권총 탄창에 없다는 것을 시작으로 네 사람의 우정에 대해 알게 되고, 결국 이수혁은 정우진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한다.

• 구성

- 발단: 북한 초소 내 총격 사건으로 북한군 2명이 사망하고 용의자 남한 병사 이수혁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됨.
- 전개: 남북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립국 위원회의 수사관 소피가 파견됨.
- 위기: 남북 병사의 왕래가 드러나며 북한군 남경필과 남한 병사 이수혁의 대립 신문으로 긴장이 고조됨.
- 절정: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남북한 당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소피가 점차 진실에 다가감.
- 결말: 소피가 사건의 실체를 숨기지만 북한군 정우진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수혁이 자살함.

★ 오답 해설:

- ② 형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는 우진의 말에 수혁은 “뭐데?”라고 묻는다. 수혁이 우진의 선물을 궁금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우진은 찾는 물건이 없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거리다가 몸을 기울여 방귀를 끼는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해학적인 상황을 만든다.
④ 성식은 우진의 위커 끈을 매 주고 우진에게 생일 선물을 챙겨준다. 성식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성품을 유추할 수 있다.

문 10. 다음 글에서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우리나라의 교통 체증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분야의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국장: 교통 체증 문제는 승용차 10부제 실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 사장: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아주 불만스러운 제도입니다. 재정이 좋은 사업자는 번호판이 다른 차를 하나 더 구입하면 되겠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박 위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어떨까요? 이 제도가 잘 활용되면 승용차 이용자도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것입니다.

김 국장: 승용차 10부제가 실시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윤 사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자: 서로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승용차 10부제에서 상업용은 제외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윤 사장: 상업용 승용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어떤 의미에서 다 상업용이지요.

김 국장: 어려움을 같이 감수해야 합니다. 모두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해결방안도 찾기 어렵습니다.

박 위원: 두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승용차 이용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절 귀성길에 시행했던 고속버스 전용 차로제의 효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회자: 버스 전용 차로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군요. 이번 토의는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데 그 의의를 두었습니다. 승용차 10부제와 같이 미진한 안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① 사회자: 참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② 김 국장: 상대방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다.
- ③ 윤 사장: 당면한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 ④ 박 위원: 참여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정답: ④ - 독해 - 화법과 작문 - 말하기 방식

★ 정답 해설:

박 위원은 '버스 전용 차로제'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두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박 위원의 말에서, 박 위원이 참여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토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사회자가 참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제를 전환하고 있는 장면은 찾아 볼 수 없다. 제시된 글에서 사회자는 '우리나라의 교통 체증 문제 해결방안'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② 김 국장은 '승용차 10부제'를 도입하자는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 상대방의 주장을 수긍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윤 사장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승용차 10부제'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으며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 11. 반의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식 : 몰상식'에서는 부정(否定)의 접두사가 붙어 반의어가 만들어진다.
- ② '남자 : 여자'는 '사람'이라는 공통 요소와 '성별'의 대조적 요소가 있어서 반의 관계를 이룬다.
- ③ '오다 : 가다'는 '이동'이라는 공통 요소와 '방향'의 대조적 요소가 있어서 반의 관계를 이룬다.
- ④ '하늘 : 땅'은 두 단어 사이에 의미의 중간 영역이 있어서 서로 반의 관계를 이룬다.

★ 정답: ④ - 이론 문법 - 의미론 - 반의 관계

★ 정답 해설:

반의 관계는 둘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도 단 하나의 요소만 대조적이어서 성립한다. '하늘:땅'은 '자연 환경'이라는 공통적 의미 요소가 있으나 다른 대상이지 단 하나의 양극적인 대조점이 있는 관계는 아니다. 또한 물리적인 공간으로는 중간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두 단어의 의미 사이에 중간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에서 요구한 조건인 '두 단어 사이에 의미의 중간 영역이 있는 반의 관계'를 '정도 반의어(반대 관계)'라 하는데, 주로 척도, 평가, 정감 등을 표현하는 단어들의 관계를 말한다.

참고> 정도(程度) 반의어(반대 관계)

정도나 등급에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단어 쌍을 의미한다. 정도 반의어는 다시 척도 반의어, 평가 반의어, 정감 반의어로 나눌 수 있고 중간항이 존재하며 동시에 부정이 가능하다.

- ① 척도(尺度): 길다 - 짧다, 높다 - 낮다, 깊다 - 얕다, 넓다 - 좁다, 두껍다 - 얇다, 크다 - 작다, 세다 - 여리다, 무겁다 - 가볍다
- ② 평가(評價): 좋다 - 나쁘다, 쉽다 - 어렵다, 영리하다 - 우둔하다, 유능하다 - 무능하다
- ③ 정감(情感): 덥다 - 춥다, 달다 - 쓰다, 기쁘다 - 슬프다, 뜨겁다 - 차갑다

★ 오답 해설:

- ① '몰상식'은 '상식'이라는 명사에 '그것이 전혀 없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몰(沒)'이 붙어 '상식'의 반의어가 된 것이다.
- ② '남자:여자'는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도 '성별'이라는 단 하나의 요소만이 대조적이다.
- ③ '오다:가다'는 '이동'을 하는 행위라는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도 '방향'만이 대조적이므로 방향 반의의 관계가 성립한다.

참고> 방향(方向) 반의어(상대 관계)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 쌍을 의미한다. 방향 반의어에는 공간적 대립, 인간관계 대립, 이동적 대립이 있다.

- ① 공간적 대립: 위 - 아래, 오른쪽 - 왼쪽, 앞 - 뒤, 처음 - 끝, 남극 - 북극
- ② 인간관계 대립: 부모 - 자식, 남편 - 아내, 스승 - 제자
- ③ 이동적 대립: 사다 - 팔다, 입다 - 벗다, 열다 - 닫다

문 12. 밑줄 친 부분의 고쳐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일을 한 사람은 민국예요.
→ ‘민국’과 ‘이에요’가 결합하였으므로, ‘민국예요’는 ‘민국이에요’로 바꾸어야 한다.
- ② 교실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가 나와야 하므로, ‘주십시오’로 바꾸어야 한다.
- ③ 자신이 한 말은 반듯이 책임을 져야 한다.
→ ‘반듯이’는 ‘반듯하게’의 의미이므로 문맥에 맞게 ‘꼭’이라는 의미의 ‘반드시’로 고쳐야 한다.
- ④ 선수들의 잇판 부상으로 전력이 문제가 생겼다.
→ 동사 ‘잇판-’과 어미 ‘-은’이 결합한 활용형은 ‘잇단’이므로, ‘잇판’은 ‘잇단’으로 바꾸어야 한다.

★ 정답: ② - 어문규정 - 표준어 규정+한글 맞춤법

★ 정답 해설:

‘요’는 높임의 보조사로 종결 어미 뒤에 붙거나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적에 연결 어미로 쓰인다. 따라서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가 나와야 하는 자리인데 ‘주십시오’로 바꾸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제시된 문장에는 하오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오’를 활용하여 ‘주십시오’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①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이’가 붙은 ‘민국이’까지가 체언이고 ‘이에요’는 서술적 조사 ‘이다’에 해당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예요’를 결합한 형태이다. ‘민국이’와 같은 받침이 없는 체언에 ‘-이에요’가 붙을 적에는 ‘-예요’로 줄여들기도 한다. 즉 ‘민국이에요, 민국이예요’가 가능하다. 여기서 ‘이’를 중복으로 발음하게 될 때는 어색하여 준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③ ‘반듯이’는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라는 뜻이고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이다. 제시된 문장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반드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잇따르다’와 ‘잇달다’는 ‘움직이는 물체가 다른 물체의 뒤를 이어 따르다’ 또는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다’의 뜻으로 쓰일 적에는 동의어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잇따르다’와 ‘잇달다’는 활용형태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잇따르다’는 ‘-’ 규칙 활용을 하여 ‘잇따르’로 적고, ‘잇달다’는 ‘ㄹ’ 규칙 활용을 하여 ‘잇단’으로 적는다. 따라서 동사 ‘잇판-’과 어미 ‘-은’이 결합한 활용형은 ‘잇단’이므로 ‘잇판’은 ‘잇단’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문 13. 밑줄 친 한자의 독음이 다른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① 率先 - 引率 ② 降等 - 下降
- ③ 樂園 - 樂勝 ④ 復活 - 復命

★ 정답: ④ - 어휘 - 한자어

★ 정답 해설:

復은 회복하다, 돌아가다 (복), 다시 (부)이다. 復活은 ‘부활’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이때 復은 다시 (부)로 쓰였다. 復命은 ‘복명’이다.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한다는 뜻으로 이때 復은 회복할 (복)으로 쓰였다.

★ 오답 해설:

① 率先은 남보다 먼저 한다는 뜻의 ‘술선’이다. 거느릴 (술), 먼저 (선)이다. 引率은 사람을 이끌고 거느린다는 뜻의 ‘인술’이다. 끌 (인), 거느릴(술) 자가 쓰였다.

② 降等은 등급이나 계급을 내린다는 뜻의 ‘강등’이다. 내릴 (강), 무리 (등) 자가 쓰였다.

下降은 아래 (하), 내릴 (강)이다. 공중에서 아래쪽으로 내린다는 뜻이다.

③ 樂園은 아무런 걱정이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즐거운 곳이라는 뜻의 ‘낙원’이다. 즐길 (낙), 언덕 (원) 자가 쓰였다.

樂勝은 경기 등에서, 힘들이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뜻의 ‘낙승’이다. 즐길 (낙), 이길 (승) 자가 쓰였다.

문 14.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대화명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는 사람은 관리자가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 ②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
- ③ 월드컵에서 보여 준 에너지를 바탕으로 국민 대통령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 ④ 행복의 조건으로서 물질적 기반 이외에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정답: ① - 이론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문장

★ 정답 해설:

대화명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는 사람은 관리자가 (앞에 언급된 사람의)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상이 생략되어 있으나 문맥적으로 생략된 성분(대화명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는 사람)을 알 수 있으니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 오답 해설:

② →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는 뒤에 오는 추측의 표현과 호응하여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거나 생각하여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마음속으로라도’라는 표현을 통해 제시된 문장이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이라는 부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③ → 월드컵에서 보여 준 에너지를 바탕으로 국민 대통령을 이룩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 ~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목적어 중 ‘국민 대통령’은 서술어 ‘제고해야 한다.’와 호응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 대통령’이 목적어로 올 수 있는, ‘이룩하다’와 같은 서술어를 활용하거나 ‘국민 대통령’을 절로 바꾸어 ‘국민을 통합하고~’와 같이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 행복의 조건으로(써) 물질적 기반 이외에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다.

‘으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행복의 조건’을 이루는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 적절하지 않다.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으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으로’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다는 것이다’라는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가 없으므로 ‘필요하다’로 서술어는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문 15. 사동 표현이 없는 것은?

- ① 목동이 양들에게 풀부터 뜯겼다.
- ② 아이들은 종이비행기만 하늘로 날렸다.
- ③ 태희는 반지마저 유진에게 보여 주었다.
- ④ 소영의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 있다.

★ 정답: ④ - 이론 문법 - 통사론 - 사동 표현

★ 정답 해설:

‘들리다’는 ‘손에 가지다’라는 뜻의 동사 ‘들다’의 사동사로도 쓰이고, 피동사로도 쓰인다. 제시된 문장에서 ‘들리다’는 ‘들다’의 피동사로 쓰였다. 피동사 ‘들리다’는 주어와 ‘...에’ 형태의 부사어를 요구하는데 제시된 문장에서는 ‘무거운 보따리’가 주어, ‘소영의 양손에’가 부사어이다.

참고로, ‘들리다’가 ‘들다’의 사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부부 싸움을 한 친구에게 꽃을 들려 집에 보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뜯기다’는 ‘초식 동물이 땅에 난 풀 따위를 떼어서 먹다.’라는 뜻의 동사 ‘뜯다’의 사동사로 쓰였다. 사동사 ‘뜯기다’는 주어, 목적어, ‘...에게’ 형태의 부사어를 요구하는데 제시된 문장에서는 ‘목동이’가 주어, ‘양들에게’가 부사어, ‘풀부터(을)’이 목적어이다.
- ② ‘날리다’는 ‘공중에 떠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다.’라는 뜻의 ‘날다’의 사동사로 쓰였다. 사동사 ‘날리다’는 주어, 목적어, ‘...에/에게’나 ‘...으로’의 형태의 부사어를 요구하는데 제시된 문장에서는 ‘아이들은(이)’이 주어, ‘종이비행기만(를)’이 목적어, ‘하늘로’가 부사어이다.
- ③ ‘보이다’는 ‘보다’의 사동사로 쓰였다. 사동사 ‘보이다’는 주어와 목적어, ‘...에게’ 형태의 부사어를 요구하는데 제시된 문장에서는 ‘태희는(가)’이 주어, ‘반지마저(를)’이 목적어, ‘유진에게’가 부사어이다.

문 16.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군산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식민 도시였다면, 금강과 만경강 하구 사이에서 군산을 에워싸고 있는 옥구는 그 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식민 농촌이었다. 1903년 미야자키 농장을 시작으로 1910년 강점 이전에 이미 10개의 일본인 농장이 세워졌으며, 1930년 무렵에는 15 ~ 16개로 늘어났다. 1908년 한국인 지주들도 조선 최초의 수리조합인 옥구서부수리조합을 세운 건 했지만 일본인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1930년 무렵 일본인은 전라북도 경지의 대략 1/4을 차지하였으며, 평야 지역인 옥구는 절반 이상이 일본인 땅이었다. 쌀을 군산으로 보내기 편한 철도 부근의 지역에서는 일본인 지주의 비중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리부터 군산에 이르는 철도 연선의 만경강 쪽 평야는 90%가 일본인이 경영한다.’는 말이 허풍만은 아닐 거다. 일본인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조선인은 ‘산비탈 흙구덩이’에 몰려 사는 처지라는 푸념 또한 과연 아닐 거다.

- ①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를 중심으로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풍자와 해학을 동원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반어적 수사를 동원하여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인과적 연결을 통해 대상을 논증하고 있다.

★ 정답: ① - 독해 - 비문학 - 논지 전개 방식

★ 정답 해설:

1900년대 옥구에 세워진 일본인 농장의 수와 1930년 무렵 일본인이 점유한 땅의 비중 등 구체적 사실과 정보를 중심으로 당시 일본에 점탈당한 조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② 풍자는 간접적 비판을, 해학은 익살스러운 표현을 의미한다. 희화화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하는 것이다. 제시된 글에는 풍자와 해학을 통해 대상을 희화화한 표현이 없다.
- ③ 당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엿볼 수 있으나 실제로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인 반어는 활용되지 않았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본인들이 조선을 침탈한 상황을 제시하였지만, 정보들이 인과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히는 논증을 목적으로 한 글도 아니다.

문 17.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근대적 연애에서 자기 의사를 중시하는 대등한 개인의 만남과 둘 사이에 타오르는 감정의 비중이 부각된다. 특히 상대방의 모습이 불리일으키는 열정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전통 사회의 남녀 관계에서 가족 사이의 약속, 상대방에 대한 의존 가능성,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비교 같은 외적 기준이 중시되었던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 옳다, 그렇다. 나는 영채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 영채는 나의 은사의 따님이요, 또 은사가 내 아내로 허락하였던 여자라. 설혹 운수가 기박하여 일시 더러운 곳에 몸이 빠졌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건져낼 책임이 있다. 내가 먼저 그를 찾아다니지 못한 것이 도리어 한이 되고 죄송하거늘, 이제 그가 나를 찾아왔으니 어찌 모르는 체하고 있으리요. 나는 그를 구원하리라. 구원하여서 사랑하리라. 처음에 생각하던 대로, 만일 될 수만 있으면 나의 아내를 삼으리라. 설혹 그가 기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양반의 집 혈속이요, 또 어려서 가정의 교훈을 많이 받았으니 반드시 여자의 아름다운 점을 구비하였으리라. 또 만일 기생이라 하면 인정과 세사도 많이 알았을지요, 시와 노래도 잘할지니, 글로 일생을 보내려는 나에게는 가장 적합하다 하고 형식은 가만히 눈을 떴다. 멍하니 모기장을 바라보고 모기장 밖에서 앵앵하는 모기의 소리를 듣다가 다시 눈을 감으며 싱긋 혼자 웃었다. 아가 영채의 태도는 과연 아름다웠다. 눈썹을 짓고, 향수 내 나는 것이 좀 불쾌하기는 하였으나 그 살빛과 눈썹과 얇은 태도가 참 아름다웠다. 더구나 그 이야기할 때에 하얀 이빨이 반짝반짝하는 것과 탄식할 때에 잠깐 몸을 틀며 보일 듯 말 듯 양미간을 찌그러는 것이 못 견디리 만큼 어여웠다. 아가 형식은 너무 감격하여 미처 영채의 얼굴과 태도를 자세히 비평할 여유가 없었거니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영채의 일언 일동과 웃고름 맨 모양까지도 어여빠 보인다. 형식은 눈을 감고 한번 더 영채의 모양을 그리면서 싱긋 웃었다. 도리어 저 김장로의 딸 선행이도 그 압전한 태도에 이르러서는 영채에게 맞지 못한다 하였다. 선행의 얼굴과 태도도 압전치 아니함이 아니지마는 영채에 비기면 변화가 적고 생기가 적다 하였다.

- 이광수, 「무정」 -

- ① 영채가 형식에게 원하는 것이 형식의 보호라면, 이를 근대적 사랑이라 보기 어렵다.
- ② 은사가 아내로 허락하였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면 형식의 영채에 대한 감정은 근대적 사랑이라 보기 어렵다.
- ③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시와 노래에 능한 영채의 장점을 호평하는 형식의 생각은 열정과 연결시킬 수 있다.
- ④ 영채의 외모와 행동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장면에서 영채에 대한 형식의 열정을 찾을 수 있다.

★ 정답: ③ - 독해 - 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가)는 전통 사회의 남녀 관계와 근대적 연애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차이를 서술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외적 기준이 중시되지만, 근대적 연애에서는 자기 의사를 중시하는 대등한 개인 사이의 만남과 그 사이의 감정이 중시된다고 본다.

(나)는 <무정>에서 형식이 여러 이유를 들어 영채를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담고 있다.

형식이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시와 노래에 능한 영채의 장점을 호평하는 점은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비교'에 해당하므로 전통적 남녀 관계에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근대적 사랑의 특징인 열정과 연결시킬 수 없다.

[작품해설] 이광수, <무정>

성격 | 계몽적, 민족주의적, 설득적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배경: 1910년대 개화기

공간적 배경: 평성, 평양, 삼랑진

구성	발단	이형식이 영어 개인 교수를 하던 김선형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무렵, 옛 은사의 딸 박영채가 나타나 사랑을 고백한다.
	전개	형식은 기생이 된 영채를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선행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느낀다.
	위기	영채는 배 학감에게 순결을 잃자 유서를 남기고 자취를 감추고, 형식은 그녀를 찾기 위해 평양까지 가지만 그녀를 찾지 못한다.
	절정	병욱의 권고로 자살을 단념하고 유학길에 오른 영채와, 선형과 약혼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형식이 같은 기차 안에서 만난다. 이들은 수재민 구호 활동을 계기로 민족을 위해 살 것을 결심한다.
	결말	토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된 그들은 장차 조국에 이바지할 계획을 토의하고 유학의 길을 떠난다.
특징	형식면	• 신소설의 문체체를 극복(언문일치) • 일방적 서술보다는 산문적 서술(장면 묘사) •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배열(입체적 구성)
	내용면	• 서구적 가치관(자유연애 사상)을 지향 • 과학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지님. •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함(민족주의).

주제 | 민족의식과 자유연애 사상의 고취

★ 오답 해설:

① 영채가 형식의 보호를 원한다면 영채는 전통적 남녀 관계에서 중시되었던 상대방에 대한 의존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근대적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은사가 아내로 허락하였다는 점을 들어 영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통적 남녀 관계의 특징인 외적 기준에 기인한 것이므로 근대적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형식은 영채의 외모와 행동에 만족하며 영채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있다. 이는 영채의 모습에 대한 형식의 열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산화탄소와 온실효과가 처음부터 자연에 해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온실효과는 지구의 환경을 생태계에 적합하도록 해 주었다. 만약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어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평균 3, 4도 정도 낮아져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50 ~ 200년이나 체류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다. 이산화탄소 외에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는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수증기 등이 있다. 프레온은 전자 제품을 생산할 때 세척제 혹은 냉장고의 냉매로 쓰인다. 아산화질소와 메탄은 공장과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생긴다. 수증기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하지만 그 양은 자연 생태계가 조절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①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등의 기체는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 ② 자연적인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된다.
- ③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서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 ④ 수증기도 이산화탄소처럼 온실효과를 나타내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 정답: ④ - 독해 - 비문학 - 내용 일치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둘째 문단에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기체로 이산화탄소,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수증기 등을 들고 있다. 그 중 수증기는 그 양을 자연 생태계가 조절하므로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 오답 해설:

① 둘째 문단에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기체로 이산화탄소,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수증기 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첫째 문단에서 온실효과가 심해질수록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고 하였으므로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등의 기체가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첫째 문단을 통해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지구 표면의 복사열이 외계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둘째 문단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크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문 19. 다음 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천암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이래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廣野)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얼으락 길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가.

... (중략) ...

초목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매물커늘
조물(造物)이 현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의 별렸구나.
건곤(乾坤)도 가암열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양정가」 -

※ 가암열사: 풍성하다는 뜻.

- ① 종조추창(終朝惆愴)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없어 들리나다.
- ② 모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눈 위하여 밝았는고.
- ③ 이 술 가져다가 사해(四海)에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다 취(醉)케 만든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또한 잔 하갔고야.
- ④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 정답: ④ - 독해 - 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정극인의 <상춘곡>이다. <면양정가>의 시적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의 시적 화자 역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풍월주인이 되었다며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작품해설] 송순, <면양정가(倅仰亭歌)>

•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고향에 내려와 면양정을 지어 살면서 지은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의 즐거움과 임금에 대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 면양정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풍경을 근경과 원경으로 그려 내고, 또 사계절에 따른 풍경의 변화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의 풍류적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결사 부분의 '역군은(亦君恩)이샀다'와 같은 관습적 표현을 통해 연군지정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형식과 내용에서 정극인의 <상춘곡>의 영향을 받고, 또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주면서 이른바 강호가도의 전통을 이어 주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 작품이기도 하다.

• 주제: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오답 해설:

- ① 선지는 박인로의 <누항사> 중에서 시적 화자가 아침이 끝날 때까지 먼 들을 바라보며 즐거운 농가 노래도 흥 없이 들린다는 부분이다. <면양정가>의 시적 화자는 자연 속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①의 시적 화자는 즐기는 농가도 흥 없이 들린다고 했으므로 서로 다른 정서를 보인다.
- ② 정철의 <속미인곡>이다. 선지는 <속미인곡> 중에서 '초가집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벽 가운데 걸려있는 등불은 누구를 위해 밝게 켜져 있냐'는 부분이다. 화자는 밤중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면양정가>의 시적 화자와 같은 정서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 ③ 정철의 <관동별곡>이다. 선지는 <관동별곡> 중에서 신선과 나누어 마신 술을 백성들과 나누고 싶다는 위정자로서 선정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자연에서의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트 중에서도 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은 1~2인용 딩기(dinghy)는 단연 요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딩기는 엔진이 없기에 오로지 바람에 의지해 나아가는 요트다. 그러므로 배 다루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바람과 조화를 이루고 그 바람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배는 바람을 받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요트는 맞바람이 불어도 거뜰히 전진할 수 있다. 도대체 요트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해답은 삼각형 모양의 지브세일(jib sail)에 숨어 있다. 바람에 평행하게 맞춘 돛이 수직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면 앞뒤로 공기의 압력이 달라진다.

요트의 추진력은 돛이 바람을 받을 때 생기는 풍압과 양력에 의하여 생긴다. 따라서 요트의 추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主)가 되는 풍하범주(風下帆舟)와, 양력이 주(主)가 되는 풍상범주(風上帆舟)를 구분하여야 한다.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풍하범주의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압력이 돛을 경계로 하여 풍상 측에서 높고 풍하 측에서 낮게 된다. 따라서 압력이 높은 풍상 측에서 압력이 낮은 풍하 측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을 총합력이라고 한다. 이 총합력의 힘은 평행 사변형 법칙에 의하여 요트를 앞으로 추진시키는 전진력과 옆으로 밀리게 하는 횡류력으로 분해될 수 있다. 센터보드나 킬(keel)과 같은 횡류방지장치에 의하여 횡류를 방지하면서 전진력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상범주의 경우는 비행기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여 비행기가 뜨게 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요트가 추진하게 된다.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면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아지고,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아진다. 비행기 날개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돛의 주위에 공기가 흐를 때 돛을 경계로 하여 풍상 측의 공기 속도는 느려지고 풍하 측의 공기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므로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여 풍하 측으로 흡인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총합력이 된다. 이 총합력은 풍하범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진력과 횡류력으로 분해된다. 횡류력은 요트를 옆 방향으로 미는 힘으로서 센터보드 등의 횡류방지장치에 의하여 상쇄된다. 따라서 요트는 전진력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딩기는 순풍이 불 때는 횡류력으로, 역풍이 불 때는 전진력으로 나아간다.
- ② 센터보드나 킬로 인해 요트는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③ 풍하범주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主)가 되며, 풍상범주는 양력이 추진력의 주가 된다.
- ④ 요트가 바람을 등지고 갈 때는 풍압에 의존하고, 맞바람을 받고 갈 때는 양력에 의존하게 된다.

★ 정답: ① - 독해 - 비문학 - 내용 일치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순풍이 불 때와 역풍이 불 때, 각각 풍압과 양력이라는 서로 다른 원리를 이용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진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횡류력은 진행 방향이 아닌, 양옆의 방향으로 분산되는 힘으로 순풍, 역풍의 두 경우에 모두 발생하지만, 센터보드나 킬 등의 횡류방지장치에 의해 억제된다.

★ 오답 해설:

- ② 넷째 및 다섯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센터보드나 킬 등의 '횡류방지장치'에 의해 횡류력을 억제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 ③ 셋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풍하범주는 풍압이, 풍상범주는 양력이 추진력의 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바람을 등지는 풍하범주의 경우, 돛을 경계로 한 풍상과 풍하의 풍압 차이를 이용해 전진한다. 맞바람을 받는 풍상범주의 경우, 돛을 경계로 한 풍상과 풍하의 유속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해 전진한다.